

여수 기름유출 가해 船社 어민피해 ‘뒷집’

〈싱가포르 오션탱커스〉

우이산호 충돌 사고... 사과·방제대책에 무대응

사과문 발표 등 신속대처 GS칼텍스와 대조적

‘우이산호 충돌사고’ 원유 유출로 여수의 해양오염과 어민피해 등이 심각한 가운데 사고 선박의 선사(船社)는 이번 사태에 뒷집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그나마 선주상호보험(P&I) 담당자와 선사 측 변호사가 해경 수사와 보상 논의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사의 입장을 책임 있게 밝힐 수 있는 인물은 아니다.

이처럼 일각에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는 오션탱커스가 앞으로 본격적인 피해 보상 논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16만4169t급인 우이산호의 선주보험 책임 한도액은 국제법상 300억원 정도로 추

산된다.

해경과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보상 주체가 명확히 가려지고 보상 범위와 금액 산정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보상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루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연합뉴스



건강검진 받는 이산상봉 최고령 할머니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19일 강원도 속초 한화콘도에 1차 상봉 대상자 중 최고령자인 김성운(96)할머니가 도착, 건강검진을 받으며 의료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여수해양경찰청과 정유·해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충돌사고를 낸 우이산호는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으로 선박 운영사는 오션탱커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해운 그룹 노버탱커스 소속 선박회사다.

이번 사고는 우이산호가 여수 광양항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규정보다 빠른 속도로 돌진해 부두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GS칼텍스는 사고 직후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류유출 사고로 국민의 마음에 걱정과 우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방제와 어민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방제비용과 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즉시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GS칼텍스는 피해 현장에도 사고 당일부터 직원 100~150명을 투입, 방제 작업을 돕는 등 현장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인 오션탱커스는 사고 발생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적인 사과마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업계와 일부 피해 주민 사이에서는 오션탱커스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오션탱커스는 사고 직후 홈페이지에 “선박 앞부분에 작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기름 유출은 없었고, 선원 모두 안전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올렸다. 사고 후 처음이자

새정치연합 28일 시·도당 발기인대회

안철수 의원 참석 광주·나주서 연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신당인 새정치연합은 27일 대전, 28일 광주와 전남 나주에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히면서 “(대회는) 내일 있고 검소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당 창당준비단은 20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기인 모집 및 발기인대회 일정 등을 밝힐 예정이다.

전남도당 창당준비단은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창당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현안 및 실무작업과 발기인대회, 당원모집,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권역별 조직화 및 인재영입 등을 논의했다. 시·도당 발기인 대회에는 안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시·도당 창준위 발기인 대회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구성한 뒤 중앙당 창준위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시·도당 별도 발기인대회를 하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며, 이후에 법정당원 1000여명 이상씩을 참여시켜 시·도당 창당대회를 다섯 곳 이상 완료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3월말 예상되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새정치연합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 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회에 출마할 뜻이 있는 인사는 시·도당 발기인에 참여할 길을 열어두겠다고 밝힌 만큼 상당수 출마 후보자가 시·도당 발기인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어 내달 추가로 2~3곳의 지역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의에서는 윤여준 공동위원장과 송호창 의원을 각 공동위원장 의장과 소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구의회 1석 ↓ 광산구의회 1석 ↑’ 선거구 확정안

광산구지역 정치권 반발

“인구 50% 동수 50% 적용을”

광주시가 ‘자치구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통해 남구의회 1석을 줄이고 광산구의회 1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확정안을 확정하자 광산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확정안을 의결했다.

전체 의원정수 68명(지역구 59명·비례 9명) 가운데 남구의 지역구를 기존 10석에서 9석으로 줄여 남구의회 의원정수를 11명(비례 2)으로 하고 광산구의 지역구를 13석에서 14석으로 늘려 의원정수를 16명(비례 2)으로 하는 안이다.

줄어드는 선거구는 남구가 선거구(월산동, 월산 4·5동, 주월 1·2동)이며, 늘어나는 선거구는 광산구 바 선거구(첨단 1·2동, 비아동, 신창동)다.

동구 8명(비례 1), 서구 13명(2), 북구 20명(2)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자치구별 의원정수 및 지역선거구 확정안 인구 30%, 동수 70%가 적용됐다.

광주시는 이날 확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25일까지 ‘자치구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야 다음달 1일 개정안 공포에 이어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회의원과 김민중 시의원, 광산구의원 등 광산지역 정치권이 반

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수 결정 기본원칙은 ‘인구 비례’와 ‘표의 등가성’으로, 인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이라며 “다른 광역 선거구는 인구 대 지역 비율을 5대 5 또는 6대 4로 적용하는데도 광역시 중 유일하게 광주만 3대 7 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의회가 이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석수가 1개 줄어든 남구의회도 대책회의를 갖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4개 정당, 5개 자치구의회,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구 30%, 동수 70% 적용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며 “예비후보 등록일정이 촉박한데다 지역정치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 30%, 동수 70% 적용을 원칙으로 확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구 50%, 동수 50%를 적용할 경우 남구와 동구 의석이 각각 1명씩 줄고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명씩 늘게 돼 정치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확정위가 시의회·언론계·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해 ‘숨은 의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권위와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AI 묻지마 살처분’ 중단

해남 육용오리 농장 보류... ‘3km 이내’ 이미 살처분 농장과 형평성 논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에서 이뤄지는 예방적 살처분을 놓고 ‘묻지마 살처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남도가 반경 3km 이내 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보류했다.

다만 확인 농장에서 반경 500m 이내 농장 1곳의 오리 2만7000여마리는 살처분했다. 유예된 농장에는 오리 2만2000여마리가 사육중이다.

전남도의 이번 조치는 최근 ‘묻지마 살처분’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막대한 보상비 부담, AI확산 소강 국면, 최근 보류한 정읍 농장에서 병아리를 입식한 곳으로 이동제한과 함께 역학조사 대상이 됐다.

전남도는 최근 AI잠복기간이 지난 이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혈청검사를 진행하던 중 고병원성 감염사실을 확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19일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해남 마산면 박모씨 육용오리 농장에서 반경 3km 이내에 있는 오리농장 1곳에 대해 살처분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되지만 주변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살처분한 다른 농장과의 형평성을 놓고 논란도 일 전망이다.

급 매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29P
→ 매매가-5300만원(일시불)
→ 문의, 010-4667-9300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사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물건에 '돈' 빌려 주실 분!
법적보장 / 전화상담 사절!**

사정상 “매매”

순천지방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P, 건물 480P, 5층 신축건물
- ▶ 감정가/시세-24억원
- ▶ 임대-보증금 3억원에 월1,300만원 예상(임대중)
2층 프랜차이즈 커피숍 임대 완료
5층 골프연습장 임대 계약
- ▶ 대출-14억원(이자 월550만원)
- ▶ 매매가-23억원, 이전비 없음
- ▶ 수입-6억원 투자에 월750만원

주인직매 H. 010-4667-9300